진도 울돌목 관광 뜬다

전망타워·해상무대·모노레일 등 설치키로

편의시설 확충 관광명소 추진

진도군이 이순신 장군의 뜨거운 호국정신이 살아숨쉬는 진도대교 인근 녹진 관광지 일대를 관광명소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

진도군은 "올해 30억원을 투입, 울돌목 일대를 배경으로 거북선을 형상화한 해상무대를 조성하는 작업과 진도대교에서 이순신 동상에 이르는 해변데크 도로 연결공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부족한 주차장, 화장실 시설 확충과 진입도로 개설, 진도대교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판옥선 형상의 포토존, 해변 조명시설 등 관광객 볼거리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도군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사업에 이순신 명량대첩 승전광장과 조도 전망의 섬 조성사업 등이 선정됨에 따라 50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어서 관광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량대첩 승전광장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135억원이 투입돼 다기능 전망대 기능과 영상 상영 및 전시공간 등을 갖춘 종합타워를 구축하게 된다. 또 관광객들이 머물다갈 수 있는 승전광장과 전망대에 접근할 수 있는 모노레일을 설치, 이미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이순신 동상과 승전광장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섬을 테마로 한 조도 전망의 섬 조성사업에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뛰어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상조도 도리산 전망타워, 하조도 조류 생태공원, 탐방로 신설 프로젝트 등이 포함돼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울돌목 급류를 이용한 조류발전소 건설에 이어 올해 해양에너지 공원을 착공하는 등 고유의 섬 문화를 고이 간직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진도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전남도·해남군과 오는 10월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간 진도대교 일대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축제를 개최하게 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유치원생들 함정 견학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최근 여수시 국동에 위치한 해양경찰부두에서 여수 선경유치원 어린이 70여명을 대상으로 함정 공개행사를 실시했다. 어린이들은 최신예 고속경비함 508함에 올라 조타실과 기관포, 인명구조용 보트 등 함정 내·외부를 둘러봤다. 〈여수해경 제공〉

명물 백수 해안도로 소나무숲 보호 강화

영광군은 16일 "백수읍 해안도로변을 중심으로 소나무림 병해충 재해저감사업을 한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등 병해충과 산불 등 각종 산림재해에 대비해 소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군은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경남 산청, 함양 등과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대상지내 임야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은 뒤 오는 9~10월 사업을 벌인다.

영광군 관계자는 "사업이 추진되면 병해충 저감으로 푸른 숲이 조성되고, 간벌된 목재는 판매해 그 수익금을 소유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사업장 '금연인증제' 실시

광양시 도내 처음 … 경쟁력도 높여

광양시가 전남도내 최초로 '사업장 금연인증제'를 실시한다.

'사업장 금연인증제'는 보건소 금연크리닉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산업체 30개소에 대해 전직원이 금연을 할 경우 금연사업체로 인정하고, 시(보건소)가 자체제작한 표지판을 회사입구에 붙여준다. 또 전 직원에게는 금연성공증서와 성공기념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담배 없는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심리상담, 체성분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불황피로감'에 시달리는 근로자의 업무강도나 스트레스를 줄여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광양시보건소 금연크리닉은 지난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수상할 만큼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금연크리닉을 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2회는 '산업체 이동 금연크리닉'을 가동중이다.

또 금연크리닉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주민들의 금연성공율은 52.5%로 전국평균 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보성강 치어 방류 보성군 공무원들이 보성강에 어류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군은 최근 4천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붕어·잉어·쏘가리·뱀장어 치어 36만마리를 보성강·벌교천 등 9개소에 방류, 어족자원 육성사업에 나섰다. 〈보성군 제공〉

목포시, 공법 바꿔 예산 9억 아꼈다

하당 배수펌프장공사 토출관로 시공방법 변경

공기 3개월 단축·교통체증 해결 등 '일석삼조'

"공법 하나를 바꿨더니 예산이 크게 절감되고 공기도 단축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봤어요."

목포시는 하당 배수펌프장 공사를 하면서 펌프장에서 바다로 물을 배출하는 토출관로 시공방법을 변경해 9억여원의 공사비 절감은 물론 공사기간을 3개월 가량 단축하고 삼향교 부근의 교통체증도 해결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현장조사와 국내 전문기관 및 감리회사 등의 분석을 통해 애초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앞 통일로(도로너비 40m)를 넘어 바다로 방류하기로 설계됐던 3천㎜의 토출관로(2천580t/분)를 도로가 아닌 삼향교 밑으로 설치하기로 공법을 바꿨다. 이에 따라 예산절감은 물론 6개월간의 도로굴착 공사기간도 3개월 앞당겨지게 돼 삼향교 부근의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관로는 도로에 매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탈피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불편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각종 공사과정에서 주민불편을 최대한 줄이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시공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7억원이 투입된 이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석현·임성지구와 목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저지대의 상습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해남 딸기 고설재배 농가 인기

병해충 예방·작업능률 향상 … 생산증대도

해남군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딸기 고설재배가 새로운 농사기술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고설재배는 1m 높이의 베드를 설치해 딸기를 재배하는 방식으로, 각종 병해충을 예방해 품질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허리를 편 채 작업을 할 수 있어 작업능률과 수량이 증대되는 효과를 지닌다.

실제 해남군은 지난해 겨울부터 올 상반기까지 3ha의 면적에 친환경 딸기 고설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해 1ha당 40톤을 생산했다. 일반재배보다 1kg당 500~1천원 비싸게 받아 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군 관계자는 "올해 안에 고설재배를 10ha로 확대 추진하고 친환경 딸기생산을 위해 보온덮개, 편의장비 등 시설환경을 개선과 우량묘 생산 기술보급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 딸기연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딸기고설재배 기술, 친환경딸기 생산시범사업 종합평가회 열어 딸기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종, 육묘, 연작장해, 병해충방제, 출하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서남해 뱃길 이용 올 113만여명

올해 여름 피서철 서남해 뱃길 이용객은 113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하계 피서철 특별수송 기간인 지난달 18일부터 전날까지 30일 동안 여객선을 이용해 서남해 섬지역을 찾은 피서객은 113만 2천400명으로 작년 (111만 7천400명)보다 겨우 1% 늘었다.

/목포=대성수기자 dss@